

마을의 축제와 예능

개요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오바마는 항구도시이자 성 주변 시가지로서 번성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적 영향과 도시 전체에 있어 부의 증가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검소한 전통과는 대조적인 우아하고 활기찬 축제가 발전했습니다. 큰 다시(축제용 장식수레), 복잡한 춤, 화려한 의상은 오바마 마을 축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어져 지금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오바마의 마을 축제

오바마 같은 도시에서의 축제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개최되는 축제보다 규모가 크고 화려했습니다. 설날이나 절분(입춘이라고 불리는 봄이 시작되기 전날로 양력 2월 3일을 말한다), 여름에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오봉 등 주요 명절에는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숭배와 오락이라는 2가지 요소를 위해 활기 넘치는 춤과 매력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축제를 위해 큰 금액을 기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바마의 축제는 며칠에 걸쳐 열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행사였으며, 종교적인 의식, 예술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일반적인 축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영향

오바마는 당시 수도였던 교토로의 해상무역과 물자수송에 특화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축제도 교토의 문화와 전통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와고에(현재의 사이타마현)의 사카이 가문이 오바마 번주가 된 17세기 초 동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예능형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운핀지시(雲浜獅子)라고 하는 사자춤은 지금도 오바마시 일부 지역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기온마쓰리와 호제마쓰리

예전 오바마 축제의 대표적인 예는 히로미네 신사의 기온마쓰리입니다. 히로미네 신사가 소유한 에도 시대 오바마 기온마쓰리의 에마키(그림 두루마리)에는 다시와 하야시, 춤꾼, 의상을 입은 참가자, 구경꾼 등의 활기찬 행렬이 그려져 있어 당시 축제의 성대한 규모를 말해줍니다. 유명한 교토 기온마쓰리의 영향은 큰 다시, 축제음악, 보후리라고 불리는 막대기를 휘두르는 춤의 춤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기온마쓰리의 공연 목록 중 일부는 9월 중순에 하치만 신사에서 행해지는 호제마쓰리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마을 내 단체와 장식 수레들이 거리를 누비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지역 전통을 기리는 민속예능을 선보입니다.

전시품

이 코너에는 주로 와카사 지역 도시축제에서 사용되는 의상을 입은 마네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호제마쓰리에 참가하는 연기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후리라고 불리는 막대기를 흔드는 춤꾼은 이국적인 의상을 입고, 길고 연한 색의 털로 된 머리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이코라고 하는 북 연주자는 검은 무늬가 있는 특징적인 노란색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가구라 악단의 횡적(가로로 붙게 되어 있는 관악기) 연주자는 노란색 기모노와 장식이 달려 있는 스게가사(삿갓)를 쓰고 붉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운편지시의 춤꾼은 어두운 색의 깃털로 장식된 사자머리 장식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상으로는 의식용 무기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불행을 쫓는다는 붉은 야차와 어룡으로 만들어진 큰 머리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인물 오코베의 의상이 있으며, 오코베는 일부 보후리 집단과 함께 관객을 즐겁게 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마네키이 뒤 벽에는 약 150년 전에 오바마에서 행해지던 기온마쓰리의 모습을 그린 에마키의 확대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